



나  
노  
기  
술  
을  
이  
용  
한  
새  
로  
운

개념의 관절염 치료기술이 포스텍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포스텍은 27일 한세광 교수(신소재공학과·사진) 연구팀이 금나노입자에 관절윤활작용이 우수한 히알루론산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 복합제형을 개발했다고 밝혔

다.

대학 측은 이번 연구결과는 가톨릭대 의대 주지현 교수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김병수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뤄졌으며, 나노 분야 세계적 권위지 ACS Nano 5월호(27일자)에 게재됐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류머티즘 관절염은 인체내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기존 혈관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미세혈관이 생겨나는 질병이다. 이번에 개발된 나노의약은 혈관생성을 억제해 기존 관절염 치료제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된 효능을 보였다.

한 교수는 “개발된 약은 동물실험을 통해 관절염 치료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속연구를 통해 류머티즘 관절염 진단과 치료 시스템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금나노입자(gold nanoparticle)= 금을 나노 크기의 입자로 제조할 경우, 우수한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 의료, 전자, 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구독신청

대구 · 경북 最古의 역사, **영남일보**와 함께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세요!

구독신청